

제갈량 - 내향대나무 기질

김종구소장 상담학박사 한국성격검사연구소 <http://www.4gunja.com> 02-334-4443

나관중의 삼국지연의에 등장하는 인물 중 가장 비범한 인물은 제갈량일 것이다. 소설속의 제갈량을 사군자기질로 보면 내향대나무 기질로 분석할 수 있다.

내향 대나무 기질인 제갈량은 지적인 능력, 명쾌한 분석력, 전체를 보는 능력, 미래를 예견하는 긴 안목, 자연의 이치와 흐름을 읽는 능력, 공사구분을 분명히 하는 것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제갈량의 삶에 나타난 내향대나무 기질의 특성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전략적 이론에 탁월한 내향대나무 기질

내향 대나무 기질은 타고난 이론가들이다. 이들은 복잡한 이론을 논리정연하게 구조화시킨다. 제갈량은 조용히 은둔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잘 간파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그런 이론가 제갈량을 삼국지의 중심인물이 되도록 만든 사람이 유비이다. 유비가 그의 도움을 받기 위해 삼고초려 했을 때 그는 천하삼분지계(天下三分之計)를 설파한다. 그의 몸은 와룡언덕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그의 머리는 천하를 평안케 할 이론을 정립했던 것이다. 제갈량의 천하삼분지계는 그 시대의 상황을 정확하게 간파한 것이었다. 한 나라를 부흥시키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유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쾌하게 제시해 주었다. 장비, 관우, 조자룡 같은 장수들의 힘만 의지하여 싸우던 유비의 군대는 후방에서 지원하는 제갈량의 전략이 더해지면서 큰 성과를 얻게 된다.

제갈량의 이론적 바탕에서 구사되는 전략은 깊이 있고 냉철한 것이었다. 조조의 장수 하우돈의 십만의 병사가 신야성을 공격했을 때 제갈량은 갈대숲으로 그들을 유인하여 불로 태워 섬멸시킨다.

손권이 조조에게 항복하려 하자 제갈량은 손권의 군사령관인 주유를 먼저 설득한다. 처음에는 주유도 조조와 전쟁할 마음이 없었다. 하지만, 제갈량은 조조가 동작대를 건설한

후에 지은 시를 인용하여 주유의 마음을 돌렸다. 조조의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다. ‘장수의 긴 흐름을 끼고 멀리 동산에서 과일 익는 것을 바라본다. 두 대를 좌우에 세우니 봉룡과 금봉이로구나. 이교를 동남에서 끌어와 아침저녁으로 함께 즐기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교는 두 개의 다리를 말하는 것이었지만, 제갈량은 교시자매, 즉 주유의 아내와 손책의 아내라고 풀이했다. 주유는 분노했고, 조조와 싸우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주유가 손권에게 싸우자고 건의하여 적벽대전이 일어나게 된다.

주유는 제갈량의 비범함을 보고 죽일 계획을 세운다.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십일 안에 십만 개의 화살을 만들어 오라고 한다. 제갈량은 삼일 만에 만들어 오겠다고 장담한다. 제갈량은 노숙에게 삼십 척의 짚단을 가득 실은 배를 준비하게 한다. 제갈량은 안개 낀 밤에 그 배를 이끌고 조조 군을 기습하여 북을 치고 노래를 부르게 했다. 기습을 당한 조조군은 당황하여 안개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오나라 함선을 향해 화살을 쏘기 시작했다. 조조 군이 쏜 화살은 제갈량이 타고 있는 함선의 짚단 위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었다. 두 시간 동안 조조 군이 쏜 화살은 십만 개를 넘었다. 제갈량은 주유에게 약속한대로 삼일 안에 십만 개 이상의 화살을 만들어 왔다. 제갈량은 그날 밤 안개가 낄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제갈량은 날씨의 변화를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있었고 안개 낀 날씨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했다.

적벽대전 때 바람의 방향 때문에 계획했던 화공을 가하지 못하자 제갈량은 자신이 바람의 방향을 변경시키겠다고 말한다. 겨울은 통상적으로 북서계절풍인 동서풍이 불지만, 삼일 정도는 무역풍인 동남풍이 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향 대나무 기질인 제갈량은 우주의 진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는 자연의 이치에 관심이 많아 별자리와 날씨를 민감하게 살폈다. 그의 진리를 알고자 하는 관심에서 비롯된 이론적 체계와 분석력이 전쟁에서 빛을 발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갈량은 퇴각하는 조조를 제거하기 위해 하용도에 관우를 매복시켰다. 그런데 매복 장소에 의도적으로 연기를 피우게 했다. 다른 군사들은 연기를 보고 조조가 도망갈 것을 염려했지만, 조조는 그 연기 때문에 그 쪽으로 올 것이라고 했다. 제갈량의 허허실실 작전이었다. 결국 조조는 관우 앞에 무방비로 서게 된다. 하지만, 관우는 조조에게 이전에 입었던 은혜 때문에 그를 죽이지 못했다.

적벽대전 중 제갈량은 조자룡과 장비를 시켜 조조 군의 패잔병들이 도망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림과 호로곡에 군사를 매복시켜 섬멸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미축, 미방, 유봉에게는 함선을 타고 강변을 순시하면서 조조 군이 버리고 간 막대한 양의 군수품을 수거하도록 했다. 싸움은 위나라 조조와 오나라 주유가 하고 전리품은 제갈량이 취했다.

제갈량은 천재 전략가이며 이론가였다. 그가 후방에서 구사한 이론적 전략은 탁월한 것이었고 일선에서 싸우는 장수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그의 인생 후반기에 그가 직접 진두지휘한 전쟁은 그리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유비가 죽은 후 직접 나선 북벌전쟁은 실패를 거듭했다. 만일, 유비가 계속 살아있고, 그가 일선에서 이론적 리더십만 구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와 유비의 인생 후반기는 다른 면모를 가졌을 것이다. 후방에서 이론적 전략만 구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제갈량은 직접 전생의 일선

에 나섰다. 그가 일선에 나선 전쟁은 이전에 그가 후방에서 전략적으로 지원했을 때 보여주었던 탁월함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론과 실전은 역시나 다른 것이었다.



공사구분이 분명한 내향대나무 기질

형주태수가 된 유표의 아들 유종은 조조가 침범하자 싸움 한 번하지 않고 조조에게 바로 항복한다. 제갈량은 유비에게 유종을 치고 형주를 탈환하여 조조를 대항할 것을 제안한다. 하지만 유비는 유표와의 정 때문에 그의 아들 유종을 치지 못하겠다고 한다. 그러자 제갈량은 대의를 위해 그 작은 정 따위는 떨쳐버리라고 조언한다. 그러나 결국 유비는 제갈량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리하여 유비는 강릉성으로 피난을 떠나게 되는데 그의 피난길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제갈량은 관우가 조조를 살려주자 그를 죽이려 했다. 유비와 장비가 간곡히 살려달라고 끓어 애원했다. 제갈량은 못이기는 척 하며 관우를 살려준다. 제갈량은 아주 냉철하게 행동했다.

의리를 중시했던 유비는 관우를 죽인 오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원정을 떠나려 한다. 하지만, 제갈량은 강력하게 반대한다. 오나라를 치는 것은 사사로운 정 때문이지만, 지금 해야 할 일은 위나라를 정벌하는 것이라고 조언한다. 하지만, 의리파 내향난초 유비는 제갈량의 말을 듣지 않고 오나라 출병을 강행한다. 결국 정 때문에 출병한 오나라와의 전쟁은 대패한다. 만일, 제갈량의 조언대로 유비가 오나라와 연합하여 위나라를 공격했더라면 축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유비의 말로가 지금보다 초라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경쟁을 통해 성장하는 내향대나무 기질

대나무 기질은 경쟁 상대가 있을 때 성장한다. 제갈량은 주유가 죽자 오나라에 문상을 가게 된다. 주유의 죽음이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오나라 군사들이 자신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을 알았지만, 제갈량은 주유의 빈소를 찾아 슬픔을 달랬다. 그의 슬픔은 더 이상 세상에 자신과 경쟁할 수 있는 뛰어난 전략가가 없음을 한탄한 것이었다. 오나라의 군사들은 조문 후 제갈량을 죽이려 했지만, 진정으로 슬퍼하는 그를 차마 죽

이지 못했다.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는 내향대나무 기질

제갈량이 적극 추천하여 등용한 방통은 못생긴 사람으로 유명하다. 유비는 처음에 방통의 재능을 알아보지 못하고 조그마한 지방의 관리로 임명했다. 제갈량은 방통을 군사중랑장이라는 중책을 부여했다. 제갈량의 아내 역시 못생긴 여자로 유명하다. 하지만, 제갈량은 능히 첩을 둘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죽을 때까지 첩을 두지 않고 월영 한 사람과 살았다. 그리고 그의 아내에게 외모를 가지고 폄하한 적이 없으며 두 사람은 아주 금슬이 좋았다고 전해진다.

내향대나무 기질 순욱과 제갈량

삼국지의 두 천재 전략가 순욱과 제갈량은 모두 내향 대나무 기질에 속한다. 순욱이 알려진 중앙 정치 관리 집안 출신이라면 제갈량은 지방관리 출신이며 어릴 때 부모님을 다 여의어 숙부 밑에서 자랐다.

순욱은 원소 밑에 있다가 원소가 대업을 이룰 인물이 되지 못함을 보고 혁신적 인물인 조조를 찾아간 경우라면 제갈량은 은둔생활 중 유비의 삼고초려를 통해 정치에 입문하게 된다.

제갈량은 유비가 못다 이룬 꿈을 그의 아들 유선이 이룰 수 있도록 죽을 때 까지 신의를 지켜 충성했다면 순욱은 조조가 권력에 안주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신념을 버리고 타협할 수 없어 자결했다. 두 사람 모두 세속의 욕심에 물들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지켰다.

제갈량은 유연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내향 난초 기질의 유비를 섬긴 반면, 순욱은 강력한 혁신적 리더십을 가진 외향 대나무 기질의 조조를 섬겼다. 이들이 리더와 갈등이 생겼을 때 대나무 기질인 제갈량은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난초 기질의 유비에게 공격적인 에너지를 발산하였다면 내향 대나무 기질의 순욱은 외향 대나무 기질의 조조에게 공격을 당하는 위치에 있었다. 같은 내향 대나무 기질이지만, 리더의 기질적 성향에 따라 갈등 에너지 흐름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김종구소장 상담학박사 한국성격검사연구소 <http://www.4gunja.com> 02-334-4443